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오전 (2부) 7시 30분
 오전 (3부) 10시
 오후 (4부) 2시
 금요일전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2월 24일 (제678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칼럼

나만의 것

나는 근래에 사업을 시작하여 자문을 구하러 온 어느 장로에게 성공자는 헛집에서 모듬회를 시키지 않는다는 말을 해줬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듬회를 시킨다는 것은 너무 여러 가지로 인하여 맛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주문하는 습성이라는 것이다. 성공자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한 가지만을 주문한다. 곧 나만의 것의 독특한 것을 찾는다는 것이다.

독창성, 개성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광고 디자인을 한다고 하자. 그럴 때 이 사람은 빨간색, 저 사람은 노란색, 다른 사람은 파란색... 다 좋다고 이것을 다 넣어 복잡하게 디자인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주는 광고효과가 있을까? 그 난잡한 디자인에 눈길을 줄 고객이 얼마나 있을까?

성공자들은 단순 심플하다. 그들이 내어놓는 제품도 심플하고, 그들의 말에도 군더더기가 없다. 또한 그들의 헤어 디자인이나 옷 코디조차도 간결하다. 대체 총리는 머플러로, 메들린 울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브로치 하나로 코디를 완성했다. 그것이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였으며, 자신만의 특색이었다.

나는 '내 백성이 지식에 없어 망한다'는 한 가지 주제로 세계를 뒤돌고 있다. 내가 장로에게 한 말은 헛집 가서 모듬회를 시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나만의 것, 독특한 내 것으로 승부해야 성공하고, 세상에 드러난다는 말을 한 것이다. 또한 너저분한 것보다는 심플한 것이 주는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헛집에 가서 모듬회를 시키지 말라. 당신이 가장 맛있게 먹는 한 가지를 시켜라. 인생에서도 모듬회를 시키듯 살지 말라. 당신이 가장 잘 하는 것 하나를 추구하고, 그리고 눈에 띄게, 알기 쉽게, 눈에 꼭 박히는 심플함으로 도전하라.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고(故) 박용구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 간증을 영상으로 함께 보았다. 목사님은 과테말라 집회에 앞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과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지옥의 참혹함을 깨달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일가친척을 전도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영상을 준비하셨다.

그렇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마는,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며 눈물로 애통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실 전도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입이 서툴러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분들에게 회소식이 있다. 목사님의 집회 영상이나 교회예배 영상을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 앞으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10분, 20분의 짧은 메시지로 편집해서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유튜브 어플에서 검색창에 "이초

목사님께서는 최근 뉴미디어의 활용에 대해 자주 언급하시면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도에 관심을 가지셨다. 박용구 목사님의 간증도 유튜브에서 찾은 것이다. 그 분야에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어찌 되었건 우리는 힘과 지혜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은 우리가 쉬고 자는 순간에도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복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곳이다. 전파사역과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과연 천국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내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첫사랑을 잃고 세상에 찌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것에 눈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은 신앙인에게 필수적인 일이다. 예배에 참석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교회는 생명을 공급 받는 젖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도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한 이산가족이 되어 참혹한 영벌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우리가 간증에서 들은 대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참혹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면 가슴을 찢어 내어놓는 일인가? 우리가 간증에서 들은 대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참혹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면 가슴을 찢어 내어놓는 일인가? 우리가 간증에서 들은 대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참혹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면 가슴을 찢어 내어놓는 일인가?

석 목사"라고 입력하면 쉽게 열어볼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 천만시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면 전도에도 매우 유용하리라 믿는다.

접속절차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메뉴에 들어가면 "YouTube"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거기에 들어가 검색창에 "이초석 목사"라고 치면 "동영상과 채널" 메뉴가 보일 것이다. 동영상 메뉴로 들어가면 무작위로 목사님 영상이 뜰 것이고, 채널 메뉴로 들어가면 "Jesus Centered Church"와 "jccslee" 라는 메뉴가 나온다. 채널 메뉴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Jesus Centered Church"에는 교회 주일예배 및 금요일집회 영상이 올라가 있고, "jccslee"에는 목사님의 집회 영상, 성령의 역사, 목사님의 10분, 20분짜리 설교 등이 올라가 있다. 많이 활용하시길 바란다.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박용구 목사님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 영상은 지금도 인터넷 공간에 남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하늘나라 확장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 목사님의 설교 및 집회 영상 또한 동일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 분명하다. 목사님이 가셔도 그 영상들은 여러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하늘나라를 확장해갈 것이다.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낼 것이고, 침륜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현대문명은 양날의 검을 갖고 있다. 잘 활용하면 엄청난 에너지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지만, 그릇 사용하면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초석 목사 과테말라 집회

▶ 장소: 과테말라 & 알모통고 ▶ 일시: 2월 18일(월) ~ 3월 3일(일)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객원컬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마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문자적인 뜻은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코스’를 번역한 말인데, 원뜻은 ‘파산을 당하여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파산을 당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설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었지만,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인의 돌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맛깔스런 뷔페음식을 접시에 담아 놓고 첫 번째 음식을 삼키는 순간, 그 즐거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첫 술에 배부른 게 아니라, 첫 술에 식도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곧바로 목 걸림과 호흡곤란으로 인해 고통이 시작되었고, 돌잔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잔치집에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갔고 혼자 심각하여 여러 방법을 취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음식이 걸리게 하신 뜻이 있을 거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두어 시간 정도 흘러갔을까?

토요일에 준비 기도모임에 돌아와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음식은 내가 걸리게 했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여쭙았습니다. ‘주님, 왜요?’ 성령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지만, 목 넘김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 그리고 공기를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지만, 숨 쉬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나? 나의 도움이 없이는, 목 넘기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거짓말처럼 목에 걸린 음식물이 쑥 내려갔습니다.

이 일을 통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인지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온전히 낮아지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였고, 또 매일매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낮은 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되는 말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과 무관하다는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잘난 사람은 쓰시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잘 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지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벌레만도 못한 저를’이라고 고백하며 씨주시에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1:26-29).

이 말씀을 지식층, 권력층, 상류층에 대한 경시사상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의 학문 수양과 재력을 키우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식층, 권력층, 상류층의 사람을 쓰셨다면, 눈에 보이는 잘난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가난함 때문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그 곳에 넉넉히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자신을 점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붙잡아 주세요!”

서울 중고등부 이창훈 교사

레미 작은 것도 귀하다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JC Academy series

지난 13일 JC 아카데미 세미나에서는 총회장 목사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생각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열띤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다(사55:8-9).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색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피폐한 삶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아는 것도 순종하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 하기에 병들고 소외되며 고통 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결국 우리 ‘생각의 결과’로 말미암는다(렐6:19). 성공하는 삶 또는 실패하는 삶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열두 명의 정탐꾼이 한 말을 보라.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두려워 하는 열 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성경에는 ‘끈기’와 ‘인내’, ‘도전정신’으로 무장하여 뒤로 물러나 침묵에 빠지지 않은 믿음의 선전들의 행적이 날마다 기록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팔죽 한 그릇을 주고 산 아랍,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흥해를 가른 모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간 유다 민족의 에스더. 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기적이 오르는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찾아오곤 한다. 인생에 험난한 파도가 밀려올 때 나 자신을 다잡으며 ‘내가 하나님만을 따라가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머무를 뒤에 쏟아져 내리는 단비를 맞을 수 있다. 사도 바울도 ‘현재 고난은 잠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던가(롬8:18).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가 쉬지 않고 보리떡을 강성한 이와 개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께 매달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행복한 삶과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맞는 일과 사람을 만나 끈기와 인내, 집념을 가지고 묵묵히 항해 끝까지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기백과 패기, 꿈도 소망도 없이 뜻무미지근하던 말인가? 여러분이 찾다가, 하다가, 또는 집을 짓다가 말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는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리라 굳게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긴 다니엘

과 같이, 여러분도 결심했으면 불굴의 의지로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을 감동시켜라. 목사라면 설교로 성도를 감동시켜야 하고, 배우라면 혼신의 연기로 관객을 감동시켜야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자기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면 맞기도 하는 것이다. 몇 번 맞고 K.O 당했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쓰러져 누워있으면 되겠는가?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연구하여 그것이 믿음이라는 지식인데 담력이든 보완한 이후, 다시 일어나는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이 되어야 한다.”

강의 이후에는 인터넷 의류 사업을 하는 청년이 400여 점의 의류를 내놓아 그 자리에 모든 모두가 또 하나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목사님도 순수 당신의 겉옷과 와이셔츠를 그 자리에서 내놓으심으로 주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실천하셨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씨앗이 되는 생각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불굴의 믿음’으로 나와 내 주변, 그리고 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국진 기자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은 인재(人材)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국내 굴지의 모 기업들 비터하여 세계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기업들은 한결같이 ‘인재제일주의’를 표방하여 지금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말은 그만큼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조직의 성패와 사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모 기업 총수가 “한 명의 뛰어난 인재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한 말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인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역량과 재능뿐 아니라 마음과 정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헌신(獻身)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대단한 인재라도 정작 그의 의지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있지 않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이 무엇이고 실력이 어떻게 되느냐서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당신을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Yes’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불러 쓰실 것입니다. **신재식 전도사**

::내가 매일 기쁘게::

복불복(福不福) 인생관

모 방송국에서 몇 년째 인기리에 방영되는 주말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식사와 잡자리를 두고 치열한 게임을 펼친다. 게임의 종류와 상관없이 결과는 복불복이다. MC들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게임에 임한다. 한겨울에 입수를 하는 것도, 맨 주먹밥을 먹는 것도 이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된다. TV를 시청할 때에는 함께 웃노라 정신이 없지만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 복불복 정신은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다.

며칠 전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다. 영화가 끝나고 어두운 상영관을 빠져 나오는데 누군가 음료수가 가득 든 컵을 떨어뜨렸다. 사람들은 뒤에서 밀려오고 컵 속의 내용물은 상영관 바닥에 흩어졌다. 그 앞에 있던 남성은 바지 전체에 음료수가 묻어 옷이 엉망이 되었다. 그런데 음료수를 쏟은 사람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키클거리면서 극장 밖으로 나갔

다. 상영관 밖에서 그 사람을 불러 동행인의 바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나는 상영관 안을 치우던지 극장 직원에게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내 집, 내 옷이 아니니 음료수쯤 흘려도 상관없다는 태도였다.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나 각종 사건사고들을 볼 때, '강 건너 불구경 보듯' 한다. 인생은 복불복이니, 내가 관련된 일이 아니면 더 이상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런 복불복 인생관을 버려야 한다.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는 출애굽하려는 모세를 방해하였다. 모세는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여러 이적을 통해 보여주었지만, 바로는 그 일들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결국 바로는 자신의 장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에 큰 부르짖음이 일게 했다. 나일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와 메뚜기 떼가 덮

쳐서 백성들이 힘들어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였다(출7장~12장).

복불복 인생관은 마음이 완악한 바로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관심과 배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타인의 일에 오지랖 넓게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들이 모여 이 세상이 좀 더 화목하고 따뜻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작은 실천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이다. 나부터, 우리부터라도 복불복 인생관을 버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사랑의 인생관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

전훈지

Good News

유명한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의 남편이었던 아서 밀러 원작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일즈맨 월리 로먼은 성공의 꿈을 꾸며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앞만 보며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나날이 실적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30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63세의 나이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꿈꾸어오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자 견줄 수 없는 절망과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분노와 자괴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광기로 깊은 밤에 자동차를 몰고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사고로 죽게 됩니다.

사고 보험금은 대졸로 산 집의 마지막 할부금을 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으로 집값을 다 치르고 집주인이 되었으나 함께할 남편이 없음을 한탄하며 울부짖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면서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어느 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여러층의 인생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을 통하여 얻고 싶어 하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즐거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참된 행복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왕은 인생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 1장 2절을 통하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일' 들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상화평 목사**

::Edu Section::

국어와 논술 학습법

본격적인 입시 시즌은 여름 방학이 끝난 후부터 수능 시험이 지난 후 한 달이다. 이 시기에는 각 대학별 수시 및 정시 입학 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러진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각 논술 강좌와 입시 상담소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하지만 남들이 모두 논술 준비를 할 때에 같이 서두르지 말도록 하자.

먼저, 대다수의 중·고등학생들은 내신 국어시험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내신 대비는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주시는 부분을 꼼꼼히 메모해 놓은 뒤에 수시로 정독을 해야 한다. 교과서 본문을 비롯해서 준비 학습과 학습 활동 및 보충 자료까지 30번 정도 정독을 하고 참고서를 푸는 것이 좋다. 문제풀이를 마친 뒤에는 문제와 해설을 함께 읽으면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메모하고, 교과서와 함께 반복해서 읽는 것

이 내신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수능 대비이다.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으로 바뀌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문학/독서로 문학과 비문학을 구분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문학과 비문학 각 영역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한다. 문학은 교과서에 실린 지문을 포함한 고전 산문, 고전 문론, 현대 산문, 현대 문론으로 구분하여 광범위하게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비문학은 언어,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의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인문 계열과 실업 계열 학생들은 과학과 기술 지문을, 자연계열 학생들은 언어와 사회, 예술 지문을 어려워한다. 예체능계열의 학생들은 비문학 지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큰 편이다. 하지만 지문의 내용보다는 지문을 읽고 각 단락별 중심 내용과 중심 주제를 골라내는 연습을 반복하면 그 지문이 다루는 주제와 무관하게 비문학도 무난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술과 면접은 국어영역공부와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논술 문제는 대부분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한 뒤에 그 제시문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요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비문학 지문을 공부하듯이 제시문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말을 사용하여 의견을 펴려는 연습을 해야 한다. 논술이 어려운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좋고, 논술 연습을 많이 해온 학생들은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과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한민국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국어가 모국어이다.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한 중에 이미 시간과 경험으로 누적된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자.

학원장 오자유 집사

Q&A

Q: 얼마 전 소천하신 집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유가족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네는 인사로는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도로서 어울리는 인사말이 있다면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A: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낙원으로 갔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에게는 육신적인 슬픔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로써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인사는 기독교 신앙에 적합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명복(冥福)'이라는 단어는 불교의 용어로서 불교 신자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장소를 '명부(冥府)'라고 하는데, 그 곳에서 받게 되는 복이 '명복'입니다. 죽은 자들이 복된 심판을 받아서 극락에 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불교의 내세관에 근거한 인사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인사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있길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부활의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는 "주님 품에 안기셨으니 믿음으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말이 무난합니다.

장례식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믿음의 말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